광주 4년제 大 진학률 전국 1위

2009학년도 평균 75.9% … 수도권 주요 대학 진학률도 최고

광덕고 87.3% 광역시 337개 일반계高 중 최고

광주가 전국 광역시 중 일반계고 2009학년도 4년제 대학 평균 진학률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학생들이 올해 초 공개된 지난 5년간 수능 성적에서 전국 1위에 오른데 이어 두 번째 쾌거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광역시 337개 일반계고(졸업생 미배출 25개교 제외)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평균 진학률은 75.9%로 1위에 올랐다. 이는 서울(42.4%), 경기(55.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광주에 이어 부산(73.8%), 울산(73.4%), 대전(68.9%), 대구(65.2%), 인천(56.1%) 순이었다. 광주는 올해 최초로 공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5년간 성적 순위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광주 광덕고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87.3%로 6개 광역시 일반계고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해동고(85.6%), 울산 문현고(80.4%), 인천 강화고(79.1%), 대전 대신고(79.0%), 대구 영남고(77.1%) 순이었다.

광덕고는 매년 졸업생의 20% 정도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광주를 넘어 전국 최고 명문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2008학년도에만 서울대 5명, 고려대와 연세대에 20명이 진학했다.

광주지역 고교의 월등한 실력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진학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 학생들은 2009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 147명, 연·고대 387명을 비롯한 주요 수도권 대학에 3천105명이 진학했으며, 이는 광주지역 수능 응시생(1만8천246명) 대비 17%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서울대 진학률은 수능 응시생 대비 0.81%로, 전국 6개 광역시 서울대 평균 진학률(0.52%)보다 크게 앞섰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교사들의 헌신적 열정과 학생들의 노력,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면서 "'실력 광주'의 명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교사 절반 "학생 체벌 심각"

광주시교육청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연수

연수 전 30%→연수 후 52%로 심각성 인식

광주지역 일선 교사 절반 이상이 학생 체벌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42개교 교사 1천6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내 체벌에 대해 52%가 '심각하거나 다소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고 '보통'은 23%, '별로, 또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5%였다.

시 교육청은 이달 초 관내 280여개 전 학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연수를 실시한 뒤 이 설문조사를 했다.

시 교육청은 "연수 전에는 체벌의 심각성을 느낀 교사가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연수 뒤 체벌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사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체벌없는 학생지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39%가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불가능'(18%)하다거나 '매우 불가능'(2%)하다는 의견도 20%에 달했다. 응답자의 68%가 학생들에 대한 인권존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자율학습을 빼먹었다며 체벌 받은 고교생이나 수행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여중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 교직원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호 외래 어종 낚시대회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어종인 블루길, 큰 입 배스 포획 낚시대회가 지난달 30일 나주시 나주호에서 열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158명이 참가했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야생 동물로 지정된 큰 입 배스와 블루길 117마리(41.4㎏)를 포획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법원, 소송 남발 우려 구청장 증인 채택하자

행정조치·소송취하 '일사천리'

법원이 자치단체의 '소모적인 소송'을 우려해 광주의 한 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행정조치 및 소송취하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달 30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던 H관광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며, H관광 측도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운송사업자인 H관광이 "북구청이 부당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낸 행정소송으로,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H관광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파기환송돼 H관광의 최종 승소가 점쳐졌었다.

이에 광주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선재성)는 북구가 승소확률이 낮은 소송에 시간을 끌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송광운 북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달 3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북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H관광으로 하여금 소송을 취하하도록 했다.

H관광은 2004년 3월부터 광주와 광양을 오가는 교직원으로 구성된 '통근버스회' 회원들을 위해 버스를 운행했다가 2007년 5월 북구청으로부터 업종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목포수협장 법정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안상원 판사는 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천5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조합장은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수협 직원 선모씨 등으로부터 '근무 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00억대 짝퉁 명품 인터넷 판매

광주세관, 6명 적발…가짜 루이비통 등 2만 여점

인터넷을 통해 100억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을 판매해온 일당 6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광주세관은 지난달 30일 "중국산 가짜 상품 사이버 판매 사범에 대해 지난 3월 26일부터 3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김모(35)씨 등 6명을 적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가짜 나이키 운동화, 가짜 몽블랑 시계, 가짜 루이비통 핸드백 등 2만여점을 1개당 2만여원에 불법으로 들여와 4만~6만원에 100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속칭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과학적인 정보 분석과 기획수사를 통해 이번 사이버 판매 사범을 검거하게 됐다"며 "가짜 상품 판매는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제주→김포 항공기 광주공항 비상착륙

제주를 출발해 김포로 향하던 항공기의 조종석 유리창에 균열이 생겨 비상착륙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50분 제주를 출발한 아시아나 8910편이 이날 낮 12시30분께 광주공항에 긴급 착륙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70여명이 타고 있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법률구조공단, 완도·진도·강진에 지소 신설

농·어촌이나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도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일부터 완도군 등 전국 15개 시·군에 지소를 설치 운영한다. 전남지역 지소 신설지역은 완도·진도·강진 등 3개 군이다.

완도지소는 완도군청 별관 2층에 마련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각 지소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액수가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민사소송은 지소에 상주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농·어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또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

과일 배달왔다 비데 몰래 뜯어가

쌍나팔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30일 공공기관 화장실에서 비데를 훔친 정모(33)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정부청사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변기에 설치돼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비데 1개를 뜯어낸 뒤 몰래 가져간 혐의.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과일을 배달하러 청사에 갔다가 일을 마치고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집 비데가 고장 난 게 생각나 가지고 있던 공구로 비데를 뜯어갔다"고 진술.

○…정씨는 화장실 주변에 설치된 CCTV에 비데를 들고 가는 모습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